□新年 時調□

東国에 내린 빛

金 東 俊

어찌 당신의 마음이며 몸짓이며가
봄날 싱그러운 꽃자리에만 머무리까
가슴 속
푸벼낸 아픔으로
다져 가꾼 보람인데。

어쩌다 그렇게 머문 터전이 아니고
짐짓 가려 선
빛 뿌리는 둘레로
拈華의
웃음을 익혀
돌어안은 이름인데。

당신의 넓은 앞가슴은
우리들의 道場으로

그 굽은 등 뒤에서
산같은 꿈을 키웠거니

그 보람
숲, 숲으로 우거
떠받드는 하늘이네。

슬기 중의 슬기와
사랑보다 큰 사랑으로
하늘의 아들같은 아들들이 모여서
그 無量
고운 빛살을
사려 담은 東國人。

시샘도 눈 흘김도
보람으로 다독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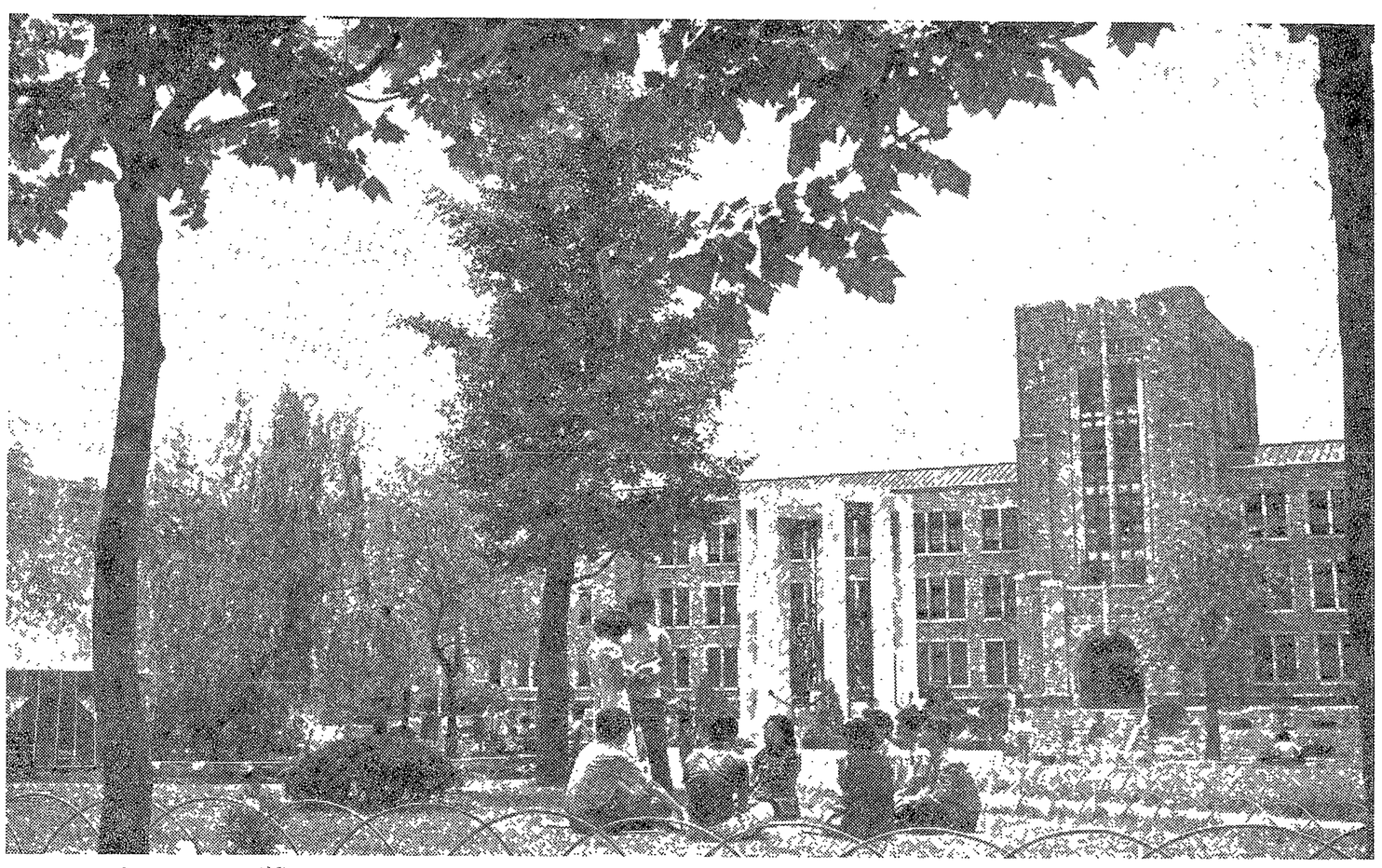
네닫는 발굽 앞엔
흩뿌린 비바람도 아니다

진실히
아파 오는 것은
하늘을 끌어잡는 일이다。

더져 넘친 발길로
문을 열고 벽을 쳐여
가슴으로 쓸어안아
큰 光明 굴린 탓에
古稀도
靑春로 외려 푸른
東國의 빛, 저 빛이여!

—丁巳 새해 아침—

<時調詩人・師大國敎科敎授>



새해, 새 決意로 學風을

상서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慈悲로운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三寶에 祈願하면서 李瑄根총장 이하 東國學院 산하 全東國人의 家庭에 福된 한해가 되기를 祝願합니다。

佛敎精神의 구현을 敎育理念으로 하여 設立된 東國大學校는 이제 開校 70周年을 보내고 새로운 大學史의 記錄이 아니라 存在理由가 明白했던 빛나는 佛敎의 記錄이였을 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業績을 自讚하거나 회고적인 자위에 도취하여 發展이 停頓되거나 後退하는 人間 自身의 問題에 있어서는 容恕되는 까닭입니다。

나는 이를 原始佛敎이래 누누히 가르쳐온 四攝法의 敎訓을 통하여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四攝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布施·愛語·利行·同事를 지칭하는 것이 "愛語"입니다。또한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봉사적이며 희생적인 행위가 "利行"으로서 여기에는 참으로 자기에게 利로운 것은 날에게도 이로운데만이 아니라 심오한 뜻이 포함됩니다。同事는 남과 협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것입니다。오컨대 四攝法은 社會淨化와 발전, 그리고 國民總和의 원동력으로서 우리 東國人이 저저야 할 불가결한 덕목이라 하겠읍니다。

끝으로 東國學院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全東國人과 함께 71년째 새해 아침을 기쁨하면서 삼가 부처님 앞에 合掌합니다。

重喜 尹·長事理

智慧體得·慈悲의 實踐

새 東國創造위해 一大跳躍

하고 研究하여 이를 先導해야 하는 責任과 使命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70周年 悠久한 歷史 위에 또 한 해의 새 아침을 맞았읍니다。

이 새 아침을 맞는 傳統을 새롭게 創造하는 새 아침이 되고 大學史의 特色있는 第二歷史의 礎石을 놓는 새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크게는 東國의 一大跳躍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決意를 굳히는 날로 새해에 더욱 강조되는 大學史의 요청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建學理念속에 명시된 自我完成과 衆生濟度의 佛陀精神을 받들어 나와 너 民族의 장래를 우리의 意志와 力量으로 개척해나가는 前進隊列에 의연히 나설것을 굳게 결의해야 하겠읍니다。

우리에겐 중단이란 없읍니다。民族文化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 大學, 그리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을 눈앞에두고 總力發展의 의지를 다져 놓은 이 시점에서우리는 대학의 發展目標와 自己發展目標를 통일하고 調和시키면서 總力前進할 시다。발전을 지체하는 태와 非合理的인 요인들을 그리고 不和를 추방하고 분연하게, 誠實하게 總和를 다져, 오직 전진합시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加護하에 東國人과 그家族 모두가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合掌합니다。

根瑄李·長總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全東國의 가정에 幸運이 가득하고 아울러 東國人의 모든 所願이 成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校內外的으로 구어느 해보다도 安定된 成長과 새로운 飛躍의 기반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진 한 해였읍니다。

國家的으로는 急變하는 世界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면서 自主·自立·自助하는 國民總和로 눈부신 經濟成長을 記錄한 해였읍니다。그러나 온 겨레의 平和念願을 外面한 北韓共産集團은 지난해에도 8·18도끼만행, 密輸外交등으로 국제적 망신과 내에 날려있을을 더욱강조하지 않을수 없었읍니다。

모두 自負해 마땅하리라 믿읍니다。本校는 이제跳躍의 意志를 펴나갈 發展의 歷史를 開拓해야 할 希望에 찬 年代를 맞았읍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80周年을 회한發展東國의 제반 기초를 돈독히 다져놓고, 밖으로는새로운 民族文化의 창조와 保證爲해 다짐을 다하기에 總力을 傾注했읍니다。특히 高麗大藏經影印本 完刊과世界佛敎學術會議의 成功的인 결실등은 本校의 建學理念에 입각한 매우特色있는 業績이었으며서도 이미 지난 해를 起點으로 長期發展計劃이 完成되어 施設의 확충과 함께 教育內容의 充實化 人事, 組織, 行政管理등에 있어 全面的인 成長目標가 마련되었읍니다。그 중에도 새해에는 大學의 80周年을 향한發展東國의 제반 기초를 돈독히 다져놓고, 밖으로는새로운 民族文化의 창조와 保證爲해 다짐을 다하기에總力을 傾注해야 합니다。特

社說

丁巳年을 맞이하며

學校的인 開校七〇週年의 기념행사와 發足에 있어 世界속의 大學으로 飛躍하는 스스로의 位置를 認識하는 한편 지난날의 經驗을 가졌음은 意義있는 일이였다。또 私學으로는 힘겨운 일이였던 丙辰年도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김없이 이루어져 거의 奇蹟的인 成果로 自他의 認定을 받게된 것은 大學當局의 信念과 大學의 存在價値를 最高度로 發揚하려는 學徒의 熱意에 推進한 全東國人이 一體가 되서 이룩한 結實이였다。

이밖에도 全東國人의 念願이였던 學內法堂의 竣工, 建物의 新築, 10年間의 史料蒐集, 第3工學館의 落成, 開校70週年을 맞이하여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學生들의 大學生活의 思出이 될 事業들이 目標대로 推進되였던 것은 우리 全東國人이 보내게 된 丙辰年을 이와같은 外觀上의 急上昇뿐아니라, 敏捷하고 特別納入과 知識敎授等, 近來에 보기 드문 學究姿勢가 이루어졌고 있다는 것은 本大學의 앞날을 위하여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所重한 精神面의 成長이였다。

이것은 丙辰年末부터 始作된 學生納入과 授業에 關한 制度의 改善과 學風의 確立에 全敎職員이 一致協力한 結果이며 學生들의 大學生活에 對한 熱意와 關心이 높아진 證據이기도 하다。

丁巳年은 丙辰年에 本大學이 이룩한 成果를 살려 더욱 前進을 期待하는 해이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우리는 丁巳年을 맞이하기에 앞서 丙辰年初에 本大學의 發展을 위한 計劃을 樹立하고 全敎職員이 一丸이 되여 이 計劃의 成果를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새學年度의 教育課程을 거쳐 이 計劃을 十全을 期하여야 할것으로 믿는다。

衆智를 總動員하여 熟議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라도 부족 計劃이라고 하는것은 아니였고 또 不足感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本大學이 丙辰年의 1年間에 이루였던 成果를 살펴 보건데 計劃의 樹立과 그 遂行에 있어서 거의 完璧한 境地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 東國人으로서 慶賀하지 않을 수 없다。

事實에 있어서는 開校七十年의 紀念事業으로 내세웠던 高麗大藏經의 完刊만 하여도 그 事業이 우리 佛敎文化가 지닌 底力과 미증유의 蒙古侵入에 國家安泰를 염원하는 佛力에 젖고 一字一句에 이르기까지 精誠들여 겨냥한 우리 祖上들의 精神力을 이 後孫에 남길 事業이였으나, 그것이 人員不足과 制限된 現下의 우리나라 私學豫算이였기에 中斷되어 20年이나 끌어왔던 것이였다。또 10個國이 참가한 以來 初有라고 表現할수있는 規模의 세계佛敎學術會議를 통하여 우리는 全世界의 佛學徒들과 무릎을 맞대고, 널리 意見을 交換하는 가운데서 韓國안의 大學으로서 世界속의 大學으로 飛躍하는 스스로의 位置를 認識하는 한편 지난날의 經驗을 가졌음은 意義있는 일이였다。또 私學으로는 힘겨운 일이였던 丙辰年도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김없이 이루어져 거의 奇蹟的인 成果로 自他의 認定을 받게된 것은 大學當局의 信念과 大學의 存在價値를 最高度로 發揚하려는 學徒의 熱意에 推進한 全東國人이 一體가 되서 이룩한 結實이였다。

이밖에도 全東國人의 念願이였던 學內法堂의 竣工, 建物의 新築, 10年間의 史料蒐集, 第3工學館의 落成, 開校70週年을 맞이하여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所重한 精神面의 成長이였다。

이것은 丙辰年末부터 始作된 學生納入과 授業에 關한 制度의 改善과 學風의 確立에 全敎職員이 一致協力한 結果이며 學生들의 大學生活에 對한 熱意와 關心이 높아진 證據이기도 하다。

丁巳年은 丙辰年에 本大學이 이룩한 成果를 살려 더욱 前進을 期待하는 해이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우리는 丁巳年을 맞이하기에 앞서 丙辰年初에 本大學의 發展을 위한 計劃을 樹立하고 全敎職員이 一丸이 되여 이 計劃의 成果를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새學年度의 教育課程을 거쳐 이 計劃을 十全을 期하여야 할것으로 믿는다。

衆智를 總動員하여 熟議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라도 부족 計劃이라고 하는것은 아니였고 또 不足感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本大學이 丙辰年의 1年間에 이루였던 成果를 살펴 보건데 計劃의 樹立과 그 遂行에 있어서 거의 完璧한 境地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 東國人으로서 慶賀하지 않을 수 없다。

事實에 있어서는 開校七十年의 紀念事業으로 내세웠던 高麗大藏經의 完刊만 하여도 그 事業이 우리 佛敎文化가 지닌 底力과 미증유의 蒙古侵入에 國家安泰를 염원하는 佛力에 젖고 一字一句에 이르기까지 精誠들여 겨냥한 우리 祖上들의 精神力을 이 後孫에 남길 事業이였으나, 그것이 人員不足과 制限된 現下의 우리나라 私學豫算이였기에 中斷되어 20年이나 끌어왔던 것이였다。또 10個國이 참가한 以來 初有라고 表現할수있는 規模의 세계佛敎學術會議를 통하여 우리는 全世界의 佛學徒들과 무릎을 맞대고, 널리 意見을 交換하는 가운데서 韓國안의 大學으로서 世界속의 大學으로 飛躍하는 스스로의 位置를 認識하는 한편 지난날의 經驗을 가졌음은 意義있는 일이였다。또 私學으로는 힘겨운 일이였던 丙辰年도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김없이 이루어져 거의 奇蹟的인 成果로 自他의 認定을 받게된 것은 大學當局의 信念과 大學의 存在價値를 最高度로 發揚하려는 學徒의 熱意에 推進한 全東國人이 一體가 되서 이룩한 結實이였다。

이밖에도 全東國人의 念願이였던 學內法堂의 竣工, 建物의 新築, 10年間의 史料蒐集, 第3工學館의 落成, 開校70週年을 맞이하여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所重한 精神面의 成長이였다。

이것은 丙辰年末부터 始作된 學生納入과 授業에 關한 制度의 改善과 學風의 確立에 全敎職員이 一致協力한 結果이며 學生들의 大學生活에 對한 熱意와 關心이 높아진 證據이기도 하다。

丁巳年은 丙辰年에 本大學이 이룩한 成果를 살려 더욱 前進을 期待하는 해이다。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김없이 이루어져 거의 奇蹟的인 成果로 自他의 認定을 받게된 것은 大學當局의 信念과 大學의 存在價値를 最高度로 發揚하려는 學徒의 熱意에 推進한 全東國人이 一體가 되서 이룩한 結實이였다。또 私學으로는 힘겨운 일이였던 丙辰年도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김없이 이루어져 거의 奇蹟的인 成果로 自他의 認定을 받게된 것은 大學當局의 信念과 大學의 存在價値를 最高度로 發揚하려는 學徒의 熱意에 推進한 全東國人이 一體가 되서 이룩한 結實이였다。

大學의 理念具現에 더욱 前進을

有志事成

◇雨林 金鎭祥 (62年英文科卒) 同門 新春 揮毫

新春論壇

現代思想의 意味分析

1. 새로운 人間像의 摸索

無自覺, 無思想의 時代

自己更新 도모하는 轉換期

鄭 璡 〈佛敎大敎授·哲博〉

일체가 일체의 스스로를 잃어버린 時代, 일체가 자기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추방을받은 시대라는것이 있다면 어떠한시대일까。

현대 文明의 찾기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은 곧 虛無의 시대가 아니다。虛無는 있는 것이다。자기부정의 시대는 곧 虛無의 시대다。자기가 곧 자기임을 원하지 않는 허무의 팡이은 문자 그대로 비극의 팡이다。절망할 것도 없다。사람들은 이렇한 허무의 상황을 언제부터인가。〈不在〉현상이라고 불러왔다。부재가 사실이라면 허무 또한 사실일게다。예컨데 죄악이건 죄악건 不〈在〉가아닐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大學이 있다해야 있어나마하여야 한다。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현실이다。살아있고 自發的인 이런 生의 源泉과 世界의 現場을 찾아나선 것이다。불합리주의의 극한 쌍절주의 혹은 神秘主義의 20世紀文學의 추구 흐름이다。「D·H·로렌스」는 原初的 本能과 性의 廢力을 통해서 생의 궁극적인 실재를 추구하였다。그는 관념의 生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한다。『내가 알기에는 다만 우리의 生이 열쇠가되고 열쇠가 되는 것이다。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언제나 그럴것이다。

우리는 무슨 機械나 이론에 떠해서가 아니라, 생에 떠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생이란 즉 살아있고 自發的인 靈魂이란 말이다。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현실이다。살아있고 自發的이고 個性的인 이 영혼이야말로 이 세계의 유일한 열쇠이다。그의의모다는 것은 불과하다고。「로렌스」는 唯性의 明證으로써 생을 〈설명〉하기를 싫어하고, 生命의 근원에 도사린 宇宙的인 힘에 부담치는 환희를노래하는 것이다。적나라한 육체와 정신으로써 행복적으로 여자를 사랑하여 삶의 길은 흐름 속으로 뛰어들것을 주장한다。

「로렌스」가 추구한 根源的인 힘은 「도스트엡스키」의 內面世界「니체」의 「힘」「조짜 르라트」의 「어둠의 한 부분」「예이츠」의 神秘主義「릴란토마스」의 生命力등과 같은 맥락에 있다。그것으로 써 인간의 全體를 설명할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도스트엡스키를 위시하여 19世紀 말엽으로부터 理性主義의 폭로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다。그리고 神을 발견한 위대한 문호라는 「니체」와 「브로이드」로서, 이들은 전통적인 神의 죽음을 선언했을뿐 아니라, 르네상스 이래 만들어 온 인간의 영광을 부정하고 그 능력이 다르게 被造物보다 월등한것 으로 생각했다。그렇게 믿는 까닭은 인간에겐 다른 生物에겐 찾아볼수 없는 理性의 힘이 있는 것을 自負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세상만사를 理性으로써 판단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자연의 이치를 合理的으로 정리하여 자연 과학에서 놀라울만한 업적을 쌓았고 人文科學에서도 많은 획기적인 가설을 낳았다。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하고 技術과 科學文明이 절정에 이름에 따라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民族과 民族의 詩

韓國民族斗 民族文化

韓國民族의 興亡方式

民族文化의 特性

韓國의 民族精神은 永生思想

徐延柱 <文理大教授・文博>

세계의 現存民族들의 強弱을 그 現在의 經濟的 政治的인 면에서 보지 않고 그 생활정신의 底力과 永續力, 自衛力등을 主로해서 본다면 아마 저 近東의 지독스럽던 民族—이스라엘과 아울러 우리 韓民族은 그 標本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우리 제와 이스라엘民族은 역사적으로 오랜동안 政治的으로는 弱少民族으로 찾은 핍박을 받아온點도 같지만, 그러나 또 어느 경우에도 멸망해버리는 일이없이 끈질기게 살아 그 생활정신의 底力을 가장 뿌리깊게 유지해온 點에서는 더 많은 近似點이 있다。

연구나 그 永遠하려는 意志, 그럼 폰수의 갈춘 悠然한 自覺, 自尊의 面에서본 다면 휴사한 것이다。얼마전 엔테베空港에서 있었던 이스라엘人의 示範的인 勇氣를 까 한다。

이 근사절은 우리 두民族 民族精神의 가장 깊은 根搪가 永生主義 思想에 立脚하는데 있다。

이스라엘民족이 오랜 그들은 잘 記憶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 俗歌의 한句節에있는 「나물 먹고 물마시며…」式으로 심심풀이처럼 이렇게 앞으로의 跳躍을 품고 참만한 여유도 우리는 거의 비숙하게 지니고있는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이 講演에서 우리겨레가 옛부터 지금까지 生成시켜온 이 나라의 永生主義精神의 大略을 말해 猶太敎의 사상에 비교하며, 또 우리 永生思想이 三國時代 이래의 우리 詩歌의 중요한것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 왔는가를 一瞥하여 우리 詩文學의 精神傳統의 바른 所在를 더듬어 보려한다。그래서 今後의 우리 民族詩가 世界詩속의 有爲한詩의 길이될 方向을 條件차려 보려는것이다。

○… 本校는 開校 70周年을 맞아 그 紀念事業의 一環으로 「民族과民族文化」를 主題로한 地方巡廻學術講演…○○…會를 지난11月16日 濟州를 기점으로 12月9日 수원에 이르기까지 全國10個都市에서 거행한다。○…○○…○○…○

그 明日의 來日을

大學은 敎師와 學生이 學問을 硏究하고 自己의 人格을 陶冶하는 場所이다。 大學의 精神은 自由와 眞理이다。 大學은 學問의 自由와 眞理를 探究하는 學生과 敎師의 共同體이다。 大學은 學問의 自由와 眞理를 探究하는 敎師와 學生의 共同體이다。 大學은 學問의 自由와 眞理를 探究하는 敎師와 學生의 共同體이다。

大學은 敎師와 學生이 學問을 硏究하고 自己의 人格을 陶冶하는 場所이다。 大學의 精神은 自由와 眞理

돌아보고 來日을

○……多事多難했던 激動의 한해 76년—.
○……發展 意志의 集約化라는 雄大的인
○……使命의 해였던 76년은 분명 東國跳躍
○……의 一大轉機를 마련하고 中興의 段階
○……로 접어들였다. 이제 開校 70周年
○……의 유구한 傳統을 쌓아오면서 日
○……淺한 우리나라 大學史의 先鋒者로서 君
○……臨해온 東國은 과연 앞으로 어떤 方
○……向으로 發展的인 自己刷新을해야 할것
○……인가? 이러한 물음과 해답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급히 要請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느 歷史나 傳統이건 그의

생사회의 활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어느덧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목표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추가하여 사회봉사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사회의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학점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시도되었고 연구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조성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이 사회의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충실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학문의 전당이며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도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양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학점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시도되었고 연구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조성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는가는 앞으로 두고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학술연구조성비의 증액만 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연구풍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학술연구조성비의 증액은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朱堯仁=東國은 自他가 認定하는 近來에 와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제삼자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측면의 發展的 커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과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張庚鶴=교수와 學生의 측면으로부터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努力이 주요한 전제이라고 생각합니다.

▲鄭允武=76년은 학도호국단 體制의 發足 2주년의 해로서 護國團 體制의 토착화 노력과 병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의 노력은 더욱 내실화되어야 하겠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학분위기 조성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점에서도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護國團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學生들은 自律的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도호국단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각적인 절실한 내적욕구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학도호국단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각적인 절실한 내적욕구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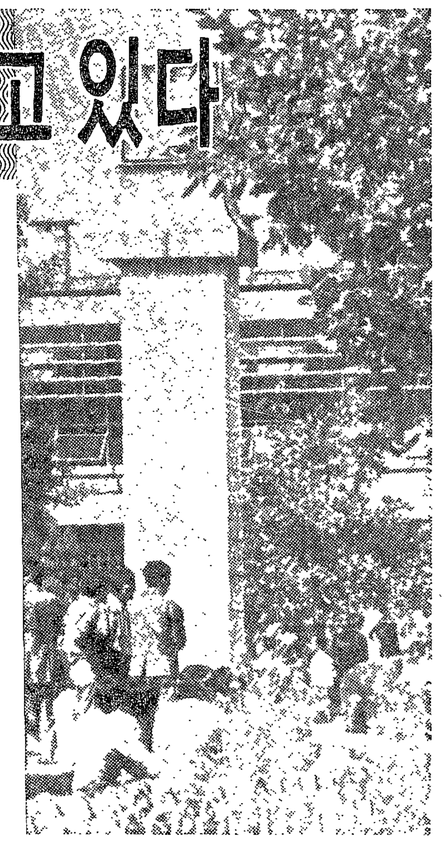
▲司會=면학분위기 조성의 노력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충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하겠다는 느낌입니다.

▲鄭允武=76년은 학도호국단 體制의 토착화 2주년의 해로서 護國團 體制의 토착화 노력과 병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의 노력은 더욱 내실화되어야 하겠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학분위기 조성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점에서도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護國團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學生들은 自律的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각적인 절실한 내적욕구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학도호국단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각적인 절실한 내적욕구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張庚鶴=現 학생처장 재직 당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

大學街가 변하고 있다



<1>

勉學雰圍氣

○○○

第665·6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우편번호100> 東大新聞

새해엔 第2校地 확보

李總長, 記者會見서 밝혀

「常勝東國」건설에 總力
第二工學館 增築
選手合宿所, 2월末 完工

本校의 長期發展計劃속에 포함되어 있는 大單位 第2캠퍼스 確保가 이번 新年度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宿願事業이었던 造根總長이 年末記者會見에서 밝힌 것으로 이자리에서 李총長은 「國際交流展望」, 「校勢擴張」, 「施設擴充」 등에관하여 抱負를 피력했다. (會見要旨는 別項)

本社와 東國포스트社의 記者會見에서 李總長은 77년度를 맞아 『東國中興을 위한 10년계획 發展元年』이라고 말하고 『10년間의 대학육성은 결코 스와 研究施設 擴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걸쳐 진행된 會見에서 李總長은 自由中國教育界視察 소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10년이나 앞서 있는 9年制 義務敎育制度의 실시에 관해 부러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대만의 대학들은 캠퍼스와 研究施設 擴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國際交流展望에 관한 질문에서 李總長은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敎學術大會의 성과가 세계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번 旅行中에서도 느꼈다. 특히 印度 델리대학에 韓國學科가 設置된 것은 우리會議에참석한 「란데아」博士의 韓國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外國大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기존 자매결연대학간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형식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생및 硏究 기능 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자료 학보에도 나타나다시피 政治大 등을 기울이고 있다. 철저한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印度의 뉴델리大등에서도초청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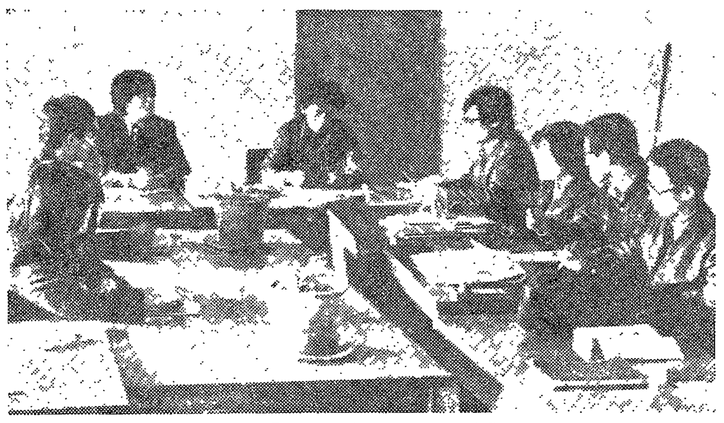
델리大에는 徐炳洙교수가 교환제제의 일환으로 파견되어 韓國學과의 학술협정을 맺게 되었다.

▲本校와 外國大學과의 交流展望=自由中國의 文化學院大와는 자매관계에있으며 이미 아데나워財團에는 本校出身 1명이 유학중이다. 日本 大生이 1명 유학중이다. 독일에다는 『스칼라·쉽』제도가 활용하여 많은 학국 학생의 유학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본교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금년부터는 현지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학술교류가 될 수 있도록 힘쓸것이

本社記者放談

70周年行事 中興의 轉機



▲76年을 회고하고 있는 記者들.

學術活動 활발 學園雰圍氣 조성

大學과 社會奇貞

이 보 장

社會發展意志에 合一

現實適應形 구조확립이 先決

Ⅰ

大學이라 불리워질수 있었던 最初의 것은 12世紀末의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대학과 파리스의 파리大學이었다。이를 初期대학으로 볼로냐대학이 유럽 각지의 法律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組合으로 발족되었던 것처럼, 「敎授와 學生들의 組合」이라는 형태를 취하고있었다。

그러다가 13世紀에 이르러서 스타디움 제네랄(Studium Generale)로 발전하면서 대학의 學問硏究의 자유와 대학의 自治를 이루게 하는 기조가되었다。

이렇게 발전해온 대학의 古典的 의미는 大學의 自治 아래서 學問을 연구하는 곳임을 나타냈다。이념서 대학을 흔히 이름바 象牙塔이라고 별명지워졌다。이는 당시의 大學이 단순히 非現實的이고 抽象的인 學問만을 연구하는 곳이라기 보다도 國家나 宗敎의 制壓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을 뜻한다。

由七科 (seven liberal arts=라틴文法, 論理, 또는 辨證法, 修辭學,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를 두고 각각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비롯된 대학의 학문 연구는 대학의 學問硏究의 자유와 대학의自治를 이루게 하는 기조가되었다。

이렇게 발전해온 대학의 古典的 의미는 大學의 自治 아래서 學問을 연구하는 곳임을 나타냈다。이념서 대학을 흔히 이름바 象牙塔이라고 별명지워졌다。이는 당시의 大學이 단순히 非現實的이고 抽象的인 學問만을 연구하는 곳이라기 보다도 國家나 宗敎의 制壓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을 뜻한다。

Ⅱ

國語辭典에는 「대학을 國家와 人類社會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방법하고 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자적 人格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最高級의 學校」라고 大學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이는 좀 미약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건드리고 있다。다시 말하면 대학이진리수호와 자기완성만을 추구하는 지위는 이제 現代의 대학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이런 고전적 語義 풀이는 아무런 의미도 줄길 수 없이 되었다。진리를 수호한다는 大學의 이미지나 象牙塔的 自己完成 지향의 의식활동과는 유도해서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야。한마디로 많은 제도적 밑받침에비해 實行에서는 부진했던게 아닌가 해。

▲L=또한 학생 자신들의 反省과 方向 設定도 문제라고 봐。학생들을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기피 내지는 빼져 나가려는 듯한 일상마저 주었으니까。그리고 너무 많았던 行事도 勉學雰圍氣조성에 지장을 초래했을 거라는 생각이지。

▲C=그렇지。開校 70주년행사에 면학분위기조성이 뒤로 밀려나간 듯한 느낌이야。

▲Y=결국엔 학교에서의 배려가 미비했던가 싶어。行事 前準備도 부족했고。

校勢擴張

▲N=올해들어 학교 동창이 그 어느 해보다도 진취적인 성격을 띠었다고봐。對外的, 對內的으로 校勢확장이 활발히 진행된 것 같아。世界佛敎學術會議라든가 全國巡廻敎學術講演등은 본교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켜 주기에 충분했지。

▲J=그뿐이냐。캠퍼스 조경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어。崇政殿도 이전 복원되어 본교의 명물로 등장하고…또한 第3工學館도 완공되고。

▲E=행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에도 문제점은많아。校威선양이라는게 어는정도 기준이나 특정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텐데, 학생들의 태도가 비교적 넝담하거든。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뒷받침해 주는 자세가 필요해。

學術活動

▲H=올해 들어 학술세미나가 많았었지。그리고 美術科의 卒業美展도 미술과의 경향을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對外交涉을 비롯, 學生活動도 활발했던 76년을 마감하는 자리에 선 것 같아。76년은 개교70주년에 따른 行事 등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지。

▲O=물론 學校의 안배도 문제였겠지만 면학분위기 조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봐。

▲T=무엇보다도 몬트리얼올림픽에 선수, 임원등 9명이 참가한 것은 「스포츠東國」의 면모를 과시한것이었지。특히 靑野亭 金貞語 두선수가 숭승장구로 돌진할뻔 신이났지。

▲H=그때 두 선수가 메달을 확보할 경우엔 號外를 발행키로하고 全記者가 뜸을사 렸었지。결국 실패작이었지만。

▲O=그건 野球에서도 마찬가지야。올해 대학野球의 틀을 몰고온 주인공이기까。「감독」라는 말이 불을만하지。그런 시련 간을 겪은 선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승팀이 있는 것이 아닐런지。

▲W=박야지。축구부는 李德룡의 「멤버권 우승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에 동감이야。어쨌든 수고했어。

▲J=이 問題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한동안 이라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O=그렇지만 적극적인 「전수 스카웃」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같애。물론 현상은 아니지만 특히 오늘 등을 얻는 날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었지。월척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이겠지만。

▲W=일찍이 찾으면 월척을 낚아 보겠다。

▲M=그 점에 대해서는 양쪽 다 반성해야겠지。二元化된 학교측에선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할만큼 유도해서 길러나간 듯한 느낌이야。많은 學生들도 많았지。그러기 때문에 現代의 대학은 과거의 象牙塔的 自己完成 지향의 의식 고수나 새로운 學問의 연구에 대해 現代는 좀더도 양보하지 못할 만큼 폐쇄적이었다